

韓國의 家口主率 變動樣相과 展望

박 주 문* · 김 희 진**

그동안 인구분야에서 출산력, 사망력 그리고 인구이동 등에는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인구의 생활단위인 가구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관련변용어의 개념정의조차 혼란을 겪는 상태이다. 그러나 점차 가구의 수나 구성추이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75~1985년간의 가구주율 변동을 기초로 앞으로 2010년까지 가구주율을 추계하고 변동양상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가구주율이 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군부지역 가구주율은 연령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점차 낮아지고 있어 지역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 가구주율에서는 아직 남녀간 차이는 크지만 여성 가구주율의 증가속도가 빠른 추세이고,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에서는 이혼과 미혼의 경우 전 연령군에서 빠른 증가를 보이며, 특히 미혼가구주율의 경우 30대 이후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I. 序 論

1. 研究 目的 및 意義

家族은 社會制度의 基本單位로서 그동안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家口主率 推計에 대한 연구는 相對的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Buck(1979)의 최근 문헌연구는, 지난 20년간 가구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출산율이나 人口移動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UN(1973a)은 結婚과 離婚을 포함한 家族 및 家口 연구는

人口學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나 연구대상의 복잡성과 정의의 결여, 그리고 가족 및 가구자료에 대한 분석방법과 모델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구수와 구성추이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와 아울러 육아 및 양로, 세대관계, 여성의 역할과 지위, 취업 그리고 주택 및 타소비재수요 등에 대한 情報(Information on the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要求가 增幅되고 있어 가구에 대한 양적 연구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 本院 主任研究員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가구의 수와 構成推移에 관한 정보수요에 부응하여 그간 우리나라 가구주율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장래 가구주율 증가추세를 전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당 인구중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가구주율은 1960년대 부터 가속화되는 人口都市集中化로 인해 큰 변동을 보였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구주율 변화와 관련하여 人口規模의 변화를 보면, 1960년에 25,012천 명에서 1990년에 42,869천 명으로 人口絶對數 면에서 큰 증가가 있어 지난 30년간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구분야 즉, 核家族化 및 脫家族化現狀이 産業化와 都市化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진행되었으며 출산력의 저하가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를 가져오면서 소가족화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구는 지난 30년간 3.2%씩 증가하여 1990년 현재 11,357천 가구에 이르고 있다.

가구수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총인구의 成長規模 내지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가구형태의 변화, 평균가구원수 등 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장래 가구수 증가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주율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구주율 추계는 장래 인구성장규모,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가구수의 변동추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938년 미국자원계획위원회(The United States National Resource Planning Committee)가 193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근거로 추계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UN Manual VII, 1973).

이러한 추계에서는 보통 장래 성별, 연령별 가구주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 가구주율 추계는 가구의 形成, 增加, 減少 그리고 解體를 직접 고려하지는 않지만 성별, 연령별

그리고 혼인상태별 추계인구수를 사용하여, 가구수를 추계함으로 주로 가구규모와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더구나 장래 가구주율 변화가 인구구성변화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要因들에 의한 것인지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구주율 추계는 經濟社會發展 計劃을 세우기 위한 情報, 즉 성, 연령 그리고 혼인상태별 장래 가구주 분포를 상세히 제공해 주기 때문에 추계 결과를 통해 앞으로를 전망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家口 關聯 用語定義

가구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는데 용어혼용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본 연구에서 그 용어들을 어떠한 개념으로 使用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1) 家族(Family)

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가족은 「結婚과 生殖活動으로 인한 자녀의 出生 혹은 入養을 통해 血緣關係를 유지하는 家族 構成員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統計的 意味를 包含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을 공유하며 함께 사는 2명 이상의 집단」이라 정의한다. 가족의 形態에는 核家族과 擴大家族이 있는데 前者는 家族概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단위로서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형태를 의미하며 i) 자녀가 없는 夫婦, ii) 兩親과 未婚子女, iii) 片親과 未婚子女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확대가족은 결혼으로 독립가정을 이루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형태, 즉 두 世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2) 家口(Household)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社會經濟的 單位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가구는 일반가구만을 지칭하는데

이에 親族家口, 非親族家口, 單獨家口가 있다.

① 親族家口(Family Household)

원칙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모여 취침, 취사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며 센서스 정의에는 i) 가구주와 그 가족만이 살고 있는 家口, ii) 가구주 및 그 가족의 親族 또는 그 밖의 사람(下宿生, 家政婦, 從業員 등의 同居人)이 같이 살고 있는 가가로 나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족가구를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세대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2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3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4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② 非親族家口(Non-Family Household)

혈연관계가 없는 5명 이하인 사람들이 集團施設 이외의 거처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單獨家口(Single Person Household)

가구주 혼자 살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3) 家口主率(Headship Rate)

해당 인구중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h(i, j, t) = \frac{H(i, j, t)}{P(i, j, t)}$$

여기서 $h(i, j, t)$ 는 t 년도의 i 성, j 연령의 가구주율을 가리키며, H 는 가구주수, P 는 인구수를 나타낸다.

4) 가구주(Head of Household, Householder)

일반적으로 가구주는 「經濟的으로 家口員을

扶養할 수 있는 주소득원이 있는 사람(principal earner)」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센서스의 定義인 「戶籍法上 戶主, 또는 住民登錄法上의 세대주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

3. 研究方法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고찰에 의존하였는데 가구주율에 관한 국내외에서 발간된 斷行本, 學術論文 및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資料들을 分析對象으로 사용하였고 統計分析用 資料는 統計廳의 統計資料 즉 「人口 및 住宅 센서스」와 UN Manual VII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구주율을 추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센서스자료와 標本調査資料 등인데 後者は 특정 지역만이 표본추출되므로 代表性에 문제가 많고 성, 연령 및 婚姻狀態別로 가구주율을 분류하기에는 표본규모가 작은 단점이 있어 가구주율을 추계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반면 前者 인구센서스 자료는 1960년대부터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료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하여 1975년 이전과 이후 자료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구주율 추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1975년 이후 센서스 자료들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율 전망을 위해서는 1980년과 1985년 가구주율을 기초자료로 사용해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격으로 추계한다. 추계방법으로는 Modified Exponential Extrapolation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가구주율추계법의 결과에 의하면 성별, 연령별 가구주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변화율도 일정치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지수함수에 의해 외삽되는데 장래 가구주율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수공식이 사용된다.

$$h(i, j, t+x) = 1 - [1 - h(i, j, t-n)] \times \left(\frac{1 - h(i, j, t)}{1 - h(i, j, t-n)} \right)^{[(t+x) - (t-n)]/n}$$

여기서 $h(i, j, t)$ 는 i 성, j 연령, t 년도의 가구주율을 가리킨다. $h(i, j, t+x)$ 는 i 성, j 연령, $t+x$ 년도의 가구주율을, $h(i, j, t-n)$ 는 i 성, j 연령, $t-n$ 년도의 가구주율을 의미한다. 또한 n 은 가구주 및 인구자료가 이용되는 두 센서스 년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장래 가구주율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단지 두 개 년도의 센서스자료만을 필요로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두 개 년도의 특정 연령 사이에 급속한 감소를 나타내었을 경우, 모든 연령집단의 가구주율이 계속 증가해 가되 그 증가속도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방법 역시 補正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그 특정 연령집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사용된다.

$$h(i, j, t+x) = h(i, j, t-n) \times \left(\frac{h(i, j, t)}{h(i, j, t-n)} \right)^{[(t+x) - (t-n)]/n}$$

II. 家口主率 關聯要因의 變化

1. 人口의 變動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병행하여 시작된 家族計劃事業의 성공적 수행으로 出生力이 감소하였고 아울러 의료기술의 발달과 保健組織

의 정비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으로 死亡力이 감소하면서 人口變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總人口가 25,012천 명이었으나 30년이 지난 1990년에는 42,869천 명으로 74.7%의 純增加를 보여 人口絶對數는 18,600천 명이 증가하였다. 인구성장률은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에 1% 이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負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II-1의 人口成長率 양상을 5년 간격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인구성장률이 1960~1966년에는 2.6%, 1970~1975년에는 1.9%, 1975~1980년에는 1.5%, 1980~1985년에는 1.4%, 그리고 1985~1990년에는 1.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성장률의 변화는 人口轉移(Demographic Transition) 段階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미 1983년에 우리나라는 人口轉移 102%에 도달되었다(朴, 1988, 1990).

총인구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960년에 12,544천 명에서 1990년에 21,845천 명으로 9,301천 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1.9%가 되며 여자의 경우는 1960년에 12,445천 명에서 1990년에 21,675천 명으로 9,230천 명이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이 남자와 같이 1.9%에 이른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남자는 1960~1966년에 2.7%, 1966~1970년에 1.8%, 1970~1975년에 2.0%, 1975~1980년에 1.5%, 1980~1985년에 1.5%, 그리고 1985~1990년에 1.5%에 이르고 있고, 여자는 1960~1966년에 2.6%, 1966~1970년에 2.0

Table II-1. Population Growth Rates, for the Period
기간별 인구증가율

Sex	1960~1966	1966~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Both Sexes	2.6	1.9	2.0	1.5	1.6	1.5
Male	2.7	1.8	2.0	1.5	1.5	1.5
Female	2.6	2.0	2.0	1.6	1.6	1.4

%, 1970~1975년에 2.0%, 1975~1980년에 1.6%, 1980~1985년에 1.6%, 1985~1990년에 1.4%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여자의 기간별 성장률이 남자의 것보다 높다가 최근에 와서 더 낮아지고 있어 人口의 性比 不均衡을 엿볼 수 있다.

2. 家口數 및 家口形態 變化

우리나라 一般家口數는 1960년의 4,358천 가구에서 1990년에는 11,357천 가구로 지난 30년간 160.6%의 純增加를 보였다(표 II-2 參照). 기간별 연평균 가구증가율은 1960~1966년과 1966~1970년 양기간에 2.5%, 1970~1975년에는 3.6%, 그리고 1975~1980년에는 3.7%, 1980~1985년에는 3.7%, 그리고 1985~1990년에는 3.5%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1966년 이후 가구분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구분화현상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생활패턴의 서구화로 인한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Table II-2. Number of Households and Increase Rates : 1960~1990
가구수 및 증가율(1960~1990)

Year	Number of Households	Annual Increase Rates(%)
1960	4,357,600	
1966	5,057,030	2.5
1970	5,576,277	2.5
1975	6,647,778	3.6
1980	7,969,201	3.7
1985	9,571,361	3.7
1990	11,357,160	3.5

다음으로 가구형태별 가구수를 살펴보면(표 II-3) 親族家口의 비율이 1966년에 96.9%에서 1975년에 95.8%, 1980년에 93.7%, 그리고 1985년에 91.4%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單獨家口는 1966년에 2.3%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1975년에 4.2%, 1980년에 4.8%, 그리고 1985년에 6.9%로 높아졌으며 非血緣家口 또한 1966년의 0.8%에서 1985년에 1.7%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단독가구의 상대적 증가추세는 전통적인 家族構造가 産業化,

Table II-3. Number and Percent Distribution of Households Type, for 1966~1985

연도·가구형태별 가구수 및 비율(1966~1985)

Household type	1966		1975		1980		1985	
	Number	%	Number	%	Number	%	Number	%
Family households	4,900,650	96.9	6,366,771	95.8	7,469,501	93.7	8,750,555	91.4
One-generation households	277,880	5.5	446,826	6.7	658,416	8.3	915,529	9.6
Two-generation households	3,316,590	65.6	4,580,227	68.9	5,457,340	68.5	6,412,196	67.0
Three-generation households	1,178,700	23.3	1,277,783	19.2	1,311,755	16.5	1,382,870	14.4
Four or more generation households	127,480	2.5	61,935	0.9	41,990	0.5	39,960	0.4
Non-Family households	38,920	0.8	—	—	116,957	1.5	159,865	1.7
Single person households	117,460	2.3	281,007	4.2	382,743	4.8	660,941	6.9
Total	5,057,030	100.0	6,647,778	100.0	7,969,201	100.0	9,571,361	100.0

都市化 그리고 生活樣式의 西歐化로 인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親族家口를 세분화시켜 볼 때 더 잘 드러나는데, 1世代 및 2世代家口의 增加와 3世代 및 4世代家口의 相對的 減少가 그것이다. 1세대가구의 경우 1966년에 5.5%에서 1985년에 9.6%로 두배가량 증가되었고, 2세대가구의 경우는 65.6%에서 67.0%로 다소 증가를 나타낸 반면 3세대와 4세대가구에서는 급속한 감

소를 보여 3세대가구는 1966년에 23.3%에서 1985년에 14.4%로, 4세대 가구는 2.5%에서 0.4%로 감소하여 3세대 이상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8%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市, 郡部별로 살펴보면, 市部地域의 경우 친족가구는 1966년에 95.7%에서 1985년에 91.2%로 감소한 반면 단독가구는 2.8%에서 6.8%로, 비혈연가구는 1.4%에서 2.0

Table II-4. Number and Percent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Year and Household Type for Urban and Rural Areas 지역·연도·가구형태별 가구수 및 비율(1966~1985)

Household type	1966		1975		1980		1985	
	Number	%	Number	%	Number	%	Number	%
<u>Urban Area</u>								
Family households	1,735,430	95.7	3,180,588	95.5	4,362,332	93.4	5,778,500	91.2
One-generation households	140,430	7.7	275,169	8.3	421,911	9.0	594,660	9.4
Two-generation households	1,289,070	71.1	2,427,459	72.9	3,335,437	71.4	4,421,238	69.8
Three-generation households	276,230	15.2	461,645	13.9	591,229	12.7	746,866	11.8
Four or more generation households	29,690	1.6	16,315	0.5	13,775	0.3	15,736	0.2
Non-Family households	26,190	1.4	—	—	87,556	1.9	124,724	2.0
Single person households	51,270	2.8	150,660	4.5	220,088	4.7	427,574	6.8
Total	1,812,890	100.0	3,331,248	100.0	4,669,976	100.0	6,330,798	100.0
<u>Rural Area</u>								
Family households	3,165,220	97.6	3,186,183	96.1	3,107,169	94.2	2,972,055	91.7
One-generation households	137,440	4.2	171,657	5.2	236,505	7.2	320,869	9.9
Two-generation households	2,027,520	62.5	2,152,768	64.9	2,121,903	64.3	1,990,958	61.4
Three-generation households	902,470	27.8	816,138	24.6	720,526	21.8	636,004	19.6
Four or more generation households	97,790	3.0	45,620	1.4	28,235	0.9	24,224	0.7
Non-Family households	12,730	0.4	—	—	29,401	0.9	35,141	1.1
Single person households	66,190	2.0	130,347	3.9	162,655	4.9	233,367	7.2
Total	3,244,140	100.0	3,316,530	100.0	3,299,225	100.0	3,240,563	100.0

%로 증가했으며, 郡部地域은 친족가구의 경우 1966년에 97.6%에서 1985년에 91.7%로 감소하였으나 단독가구의 경우는 2.0%에서 7.2%로, 비혈연가구는 0.4%에서 1.1%로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부지역에 비해 군부지역에서 가구형태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났음을 읽을 수 있다(표 II-4 參照).

3. 平均 家口員數 變化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가수원수(표 II-5)는 1960년의 5.7명에서 1966년의 5.5명, 1970년에 5.2명, 1975년에 5.0명, 1980년에 4.6명, 1985년에 4.2명, 그리고 1990년에 3.8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1960년에 6이었던 합계출산력이 1990년에 1.6수준으로 낮아진

출산력의 감소와 가구분화로 인한 핵가족과 단독가구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시부의 경우, 1966년에 5.1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0년에 3.8명에 이르고 있고, 군부의 경우 1966년에 시부지역보다 약간 높은 5.7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시부와 같이 3.8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구분화가 군부지역에서 더 빨리 진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 평균가구원수의 추이를 보면, (표 II-6) 1970년 자료의 경우 남자가 2.59명, 여자가 2.65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 오면 남자 1.92명, 여자 1.90명으로 나타나 여자 가구원수가 더 큰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을 엿볼 수 있다.

Table II-5. Average Household Size by Region : 1960~1990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1960~1990)

Region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Whole country	5.7	5.5	5.2	5.0	4.6	4.2	3.8
Urban	—	5.1	4.9	4.8	4.4	4.0	3.8
Rural	—	5.7	5.5	5.3	4.7	4.2	3.8

Table II-6. Trend of Average Household Size by Sex : 1970~1990
성별 평균 가구원수 추이(1970~1990)

Sex	1970	1975	1980	1985	1990
Both sexes	5.24	5.04	4.62	4.15	3.82
Male	2.59	2.50	2.32	2.08	1.92
Female	2.65	2.54	2.30	2.07	1.90

III. 家口主率 變化樣相 分析

圖 III-1의 1975년 자료에서 연령별 가구주율의 변화를 보면 50~54세 까지 繼續 가구주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는 패턴을 읽을 수 있다. 즉 50~54세 연령군에서 가장 높은 가구주율인 0.561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시, 군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부지역은 35~39

세 까지 계속 증가하여 가구주율 0.268에 이른 다음 감소하고 군부지역은 50~54세 까지 증가하다가 가구주율이 0.533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패턴을 각각 보이고 있다. 1980년도의 가구주율은 1975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패턴 또한 좀 달라 55~59세의 0.565에 이르기 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시부지역은 1975년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가구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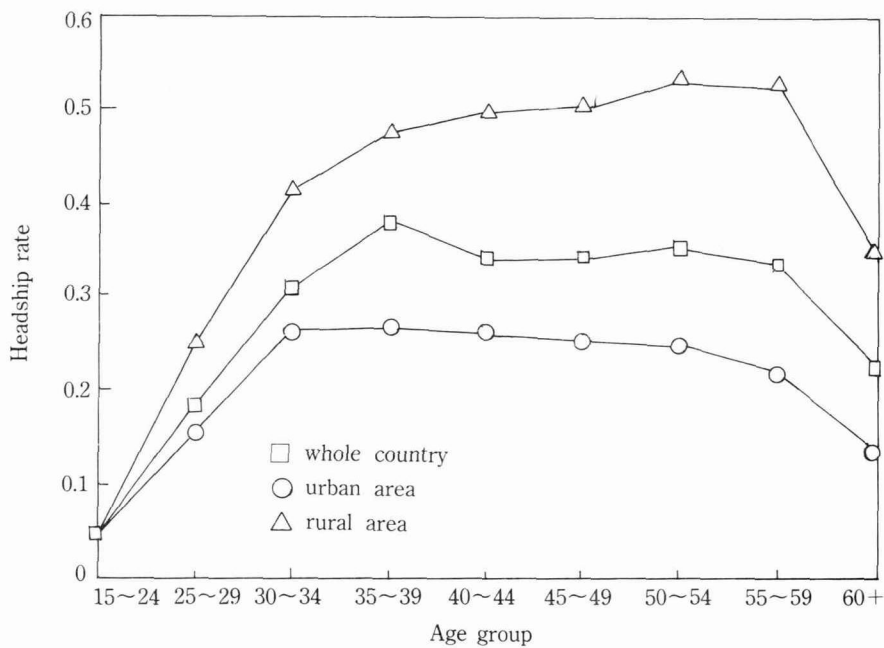


Fig. III-1. Age-Specific Headship Rate for Region, 1975
연령계층별 가구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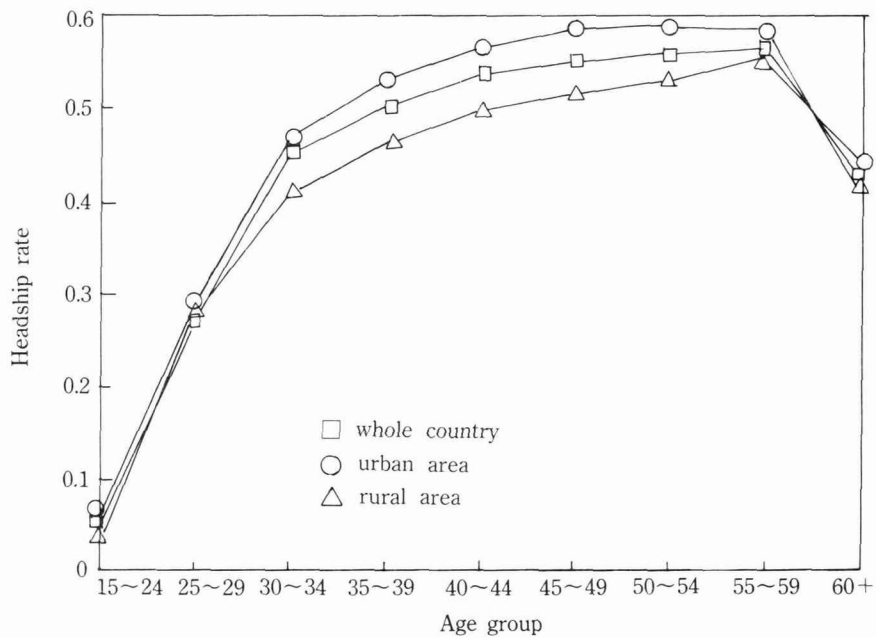


Fig. III-2. Age-Specific Headship Rate for Region, 1980
연령계층별 가구주율

령별 패턴을 보면 50~54세에서 0.587로 가장 높다가 그 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군부지역은 15~24세, 30~39세, 40~44세, 그리고 50~54세의 가구주율이 1975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가구주율 패턴은, 0.551을 보인 55~59세 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60세 이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군부지역은 1985년에 가면 1980년에 비해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圖 III-2). 이러한 군부지역 가구주율의 감소현상은 그동안의 社會經濟的 興件變化로 인하여 農村人口가 都市로 流入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5년의 가구주율은 1975년과 1980년에 비해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패턴을 보면 50~54세의 0.564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시부지역의 경우도 전국의 경우와 같이 50~54세의 0.593에 이르기까지 증가하다가 그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85년의 연령별 가구주율을 1980년의 것과 비교해 보면 25~44세, 55~59세의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반면 군부지역의 경우는 전체 가구주율은 1980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연령별로 볼 경우 25~29세, 55~5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가구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1985년 자체의 연령별 패턴은 1980년의 경우와 같이 55~59세까지 증가하다가 60세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圖 III-3과 附錄表 I 參照).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별 가구주율 패턴은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0세 중반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일정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연령별 가구주율을 성별, 지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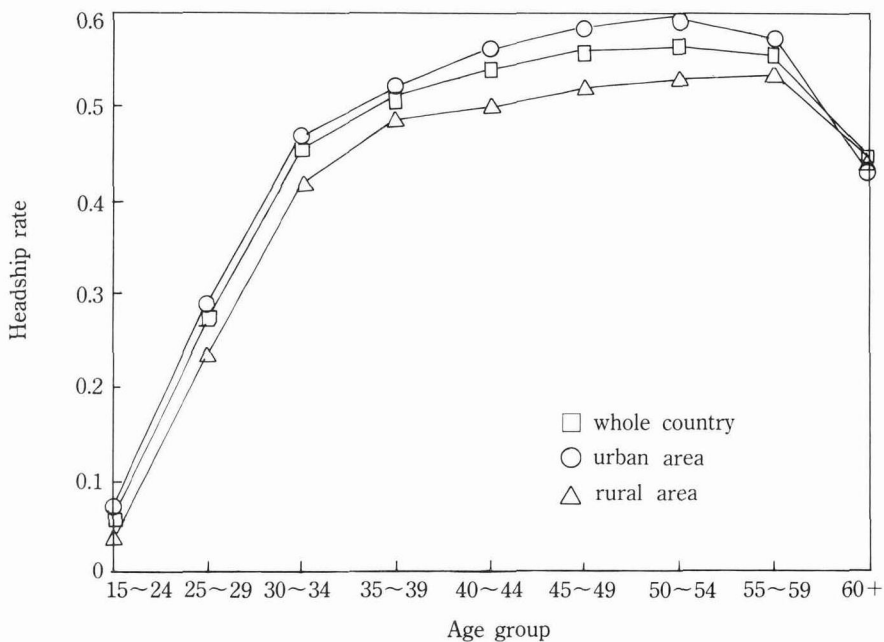


Fig. III-3. Age-Specific Headship Rate for Region, 1985
연령계층별 가구주율

Table III-1. Sex-Age Specific Headship Rates : 1975~1985

성·연령별 가구주율 : 1975~1985

Age group	Male			Female		
	Whole country	Urban	Rural	Whole country	Urban	Rural
1975						
Total	.332	.337	.327	.049	.057	.039
15~24	.055	.029	.094	.024	.020	.011
25~29	.472	.282	.450	.037	.028	.023
30~34	.824	.487	.800	.050	.033	.037
35~39	.913	.483	.900	.077	.047	.060
40~44	.942	.456	.935	.122	.071	.093
45~49	.959	.438	.956	.165	.095	.124
50~54	.965	.405	.965	.186	.103	.141
55~59	.947	.353	.946	.179	.094	.137
60+	.726	.243	.735	.122	.006	.091
1980						
Total	.363	.369	.355	.063	.068	.056
15~24	.060	.007	.043	.036	.047	.016
25~29	.504	.538	.630	.043	.050	.027
30~34	.824	.855	.762	.058	.065	.042
35~39	.911	.932	.874	.084	.096	.065
40~44	.940	.955	.920	.118	.141	.090
45~49	.955	.966	.943	.162	.198	.127
50~54	.963	.968	.959	.211	.253	.174
55~59	.955	.953	.957	.228	.267	.196
60+	.814	.803	.819	.171	.183	.162
1985						
Total	.339	.402	.393	.074	.078	.067
15~24	.063	.074	.042	.052	.064	.022
25~29	.497	.523	.429	.052	.060	.028
30~34	.834	.856	.775	.060	.067	.040
35~39	.913	.928	.876	.087	.096	.065
40~44	.947	.955	.928	.128	.140	.094
45~49	.961	.966	.954	.156	.183	.118
50~54	.966	.968	.965	.197	.234	.155
55~59	.954	.951	.958	.234	.269	.198
60+	.805	.802	.807	.203	.213	.194

1975년 자료부터 보면(표 III-1), 남자의 가구주율은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여자의 것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가구주율을 자세히 보면 男子 모두 50~54세까지(남자는 0.965, 여자는 0.186) 증가하다가 그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다시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시부에서는 남자의 경우 30대 초반에 0.487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50초반에 0.103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군부지역의 경우는

남녀 가구주율의 차가 시부보다 더 크게 나타나
여자 가구주의 비율이 농촌의 경우 더 낮게 나
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연령별 패턴은 남녀 모두
시부지역과 같다 (정점은 남자 0.965, 여자 0.
141).

다음으로 1980년도의 가구주율을 보면, 남자는
15~24세를 제외하고는 여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중반을 전후로 절정에 이른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시, 군부 또한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는 50~54세에,

Table III-2. Headship Rates by Age and Marital Status : 1975~1985

연령 · 혼인상태별 가구주율 : 1975~1985

Age group	Marital Status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1975				
Total	.458	.362	.508	.050
15~24	.096	.309	.188	.034
25~29	.301	.523	.325	.150
30~34	.452	.670	.439	.218
35~39	.499	.745	.545	.242
40~44	.496	.716	.615	.240
45~49	.524	.613	.630	.241
50~54	.572	.514	.397	.209
55~59	.594	.400	.536	.214
60+	.542	.199	.377	.141
1980				
Total	.463	.432	.580	.059
15~24	.110	.377	.176	.041
25~29	.321	.571	.352	.156
30~34	.459	.717	.488	.246
35~39	.480	.804	.504	.289
40~44	.521	.815	.673	.311
45~49	.529	.744	.708	.311
50~54	.542	.624	.689	.338
55~59	.581	.514	.651	.329
60+	.576	.263	.489	.283
1985				
Total	.470	.454	.640	.080
15~24	.126	.344	.209	.051
25~29	.322	.593	.377	.179
30~34	.463	.754	.529	.296
35~39	.505	.838	.650	.380
40~44	.526	.855	.726	.432
45~49	.538	.798	.755	.455
50~54	.546	.680	.734	.468
55~59	.551	.558	.696	.470
60+	.555	.298	.586	.408

여자는 55~59세에 가구주율에 절정에 이른 후 감소한다.

1985년에 가도 가구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80년도와 마찬가지로 15~24세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자의 가구주율이 여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全體 男女의 가구주율 패턴, 시, 군부별 가구주율 패턴은 1980년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性別 地域別 가구주율도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표 Ⅲ-2를 통해 전체 혼인 상태별 가구주율을 보면 1975, 1980, 1985년 모두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배우, 사별, 미혼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1975년의 경우 유배우 가구주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가 55~59세의 0.594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별은 35~39세의 0.745를 정점으로 증감의 변화를, 이혼과 미혼의 경우는 45~49세의 0.630과 0.241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980년 유배우의 경우는 55~59세의 0.581을, 사별은 40~44세의 0.815를, 이혼은 45~49세의 0.708을, 그리고 미혼의 경우는 50~54세의 0.338을 정점으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5년의 가구주율은 유배우의 경우 연령에 따라 繼續 증가하여 60세以上 연령군에서 0.5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별은 40~44에서 0.855로 이혼은 45~49세에서 0.755로 그리고 미혼의 경우는 55~59세에서 0.470으로 各各 最高의 가구주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표 Ⅲ-3을 통해 1975년의 가구주율을 성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남자의 경우, 가구주율이 有配偶狀態가 다른 경우에 비해 높으나 여자의 경우는 離婚인 상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자는 有配偶의 경우 연령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50~54세에 0.

974로 절정에 이룬후 감소하며 死別, 離婚, 未婚의 경우는 공히 40대 후반에 각각 0.791, 0.616, 0.285로 가장 높고 그후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자는, 유배우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繼續 증가하여 40대 후반에 0.051로 가장 높으나 사별, 이혼, 미혼인 경우는 40~44세에 각각 0.714, 0.638, 0.189로 가장 높다.

1980년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은 197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는데 그 패턴은 비슷하여 남자의 경우 유배우상태가 0.902로 가장 높고 여자는 이혼인 경우가 0.5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배우상태에서의 가구주율은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 계속 증가하다가 50~54세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사별의 경우는 남자는 45~49세, 여자는 35~39세에 가장 높으며, 이혼의 경우는 남자는 50~54세, 여자는 45~49세에 절정에 달했다가 줄어들고 있고 미혼의 경우는 남녀 모두 50~54세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1985년 역시 1980년에 비해 가구주율은 높아지고 있다. 유배우 남자의 경우 50~54에서 0.9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자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0.064를 기록하고 있어 여자의 경우 그 전과는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율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사별남자의 경우는 45~49세에 0.842로 가장 높으며 사별여자는 40~44세에 0.8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혼인 경우는 남녀 공히 45~49세에 가장 높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혼인 경우는, 남자는 50~54세에 0.518로 가장 높다가 감소하는 반면 여자는 40~44세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45~49세, 50~54세에 계속 감소, 그리고 다시 55~59세에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치인 0.419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볼 때, 혼인상태별 가구주율 역시 연령이 높아지면서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에

Table III-3. Headship Rates by Age, Sex, and Marital Status : 1975~1985

성·연령·혼인상태별 가구주율 : 1975~1985

Age group	Male				Female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1975								
Total	.586	.327	.333	.043	.022	.214	.395	.023
15~24	.513	.409	.194	.040	.015	.279	.151	.026
25~29	.751	.515	.363	.161	.021	.524	.311	.109
30~34	.872	.602	.448	.233	.028	.682	.436	.163
35~39	.926	.701	.520	.272	.039	.751	.557	.179
40~44	.951	.743	.567	.271	.046	.714	.638	.189
45~49	.967	.791	.616	.285	.051	.598	.637	.181
50~54	.974	.786	.601	.258	.049	.488	.617	.152
55~59	.961	.736	.579	.269	.043	.363	.504	.162
60+	.823	.418	.466	.218	.036	.162	.310	.087
1980								
Total	.902	.615	.553	.065	.036	.408	.594	.044
15~24	.580	.444	.175	.041	.013	.355	.168	.041
25~29	.788	.541	.344	.162	.022	.579	.356	.139
30~34	.873	.646	.451	.247	.034	.733	.507	.241
35~39	.927	.718	.560	.288	.040	.819	.630	.290
40~44	.949	.803	.623	.313	.045	.817	.703	.307
45~49	.962	.839	.669	.314	.048	.732	.729	.306
50~54	.972	.835	.670	.323	.051	.604	.700	.357
55~59	.967	.794	.659	.313	.050	.484	.646	.350
60+	.871	.498	.581	.283	.044	.228	.419	.283
1985								
Total	.914	.574	.623	.082	.040	.439	.650	.077
15~24	.669	.357	.166	.045	.014	.340	.235	.059
25~29	.825	.516	.363	.182	.020	.610	.385	.173
30~34	.894	.634	.497	.290	.032	.776	.549	.310
35~39	.933	.720	.612	.373	.043	.856	.677	.394
40~44	.957	.789	.670	.443	.052	.864	.745	.415
45~49	.969	.842	.734	.492	.054	.793	.770	.400
50~54	.974	.836	.726	.518	.056	.665	.739	.396
55~59	.965	.784	.722	.506	.063	.538	.681	.419
60+	.860	.453	.644	.437	.064	.020	.549	.229

도달한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상태' 변수는 가구주율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을 성별로 세분화해 보았을 때에는 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을 지역별로 간단히 살펴보자(부록표 II~IV 參照). 1975년의 경우 미혼여자를 제외하고는 男女 公히 시부에 비해 군부의 가구주율이 더 높으나 1980년에는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군부에 비해

시부의 가구주율이 매우 큰 증가를 보여 최근 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6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었던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1975년의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의 경우 시부는 남녀 모두 지역별로 세분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반면 군부는 남자의 경우 有配偶, 死別, 離婚, 未婚의 순서로 가구주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離婚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死別, 有配偶, 未婚의 순서를 나타내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군부의 특징은 1980년에 가도 계속되는데 1980년에는 시부남자의 가구주율도 이혼보다 사별의 경우 더 높아져 군부남자와 같은 특징을 보여 준다. 그러나 1985년에 오면 또 다른 변화를 나타내 남녀 모두 지역에 상관없이, 지역별로 세분화하기 이전에 특성, 즉 남자는 유배우 가구주율이 가장 높고 그 뒤로 이혼, 사별, 미혼의 순을 보이고 여자는 이혼의 가구주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별, 미혼, 유배우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이혼과 미혼 가구주율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IV. 展望：家口主率의 推計結果 및 解析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推計方法 즉, Modified Exponential Extrapolation을 사용하여 2010년까지 추계한 가구주율을 근거로 向後 우리나라 가구주율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본 추계는 1980, 1985년 자료를 기초로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가구주율을 5년 간격으로 산출하였다.

가구주율은 계속 증가해 가되 그 증가속도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1980, 1985년 두 개 년도 사이의 증가, 감소의 비율이 향후 추계에 결정적 근거로 제

시해 주고 있다. 그렇기에 가구주율의 장기적인 변화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연도, 특정 연령군의 특성을 조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보정공식을 사용하여 그러한 특정연도 및 연령군의 가구주율을 補正하였다.

먼저 표 IV-1을 통해 전체 가구주율을 展望해 보면, 일정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는 2010년에는 0.330가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연령별로 볼 때에도 55~59세의 연령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各年度別로 보면, 1980년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주율이 계속 증가하다가 55~59세를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1985년에는 50~54세를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50~54를 정점으로 하는 특성이 1990, 1995, 2000년까지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45~49세의 가구주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5년에 가면 가장 높은 가구주율을 나타내는 연령대가 45~49세가 된다. 결과적으로 가구의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전체 가구주율을 시, 군부별로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변화와 같이 시부의 경우는 뚜렷한 증가추세, 군부의 경우는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시부의 경우 높은 증가율로 증가해 가는데 1980년에 0.218이었던 것이 2010년에 가면 0.641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연령별로 세분화해 보게되면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5~24세, 45~49세, 50~54세,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를 보이나 25~44세, 55~59세의 연령군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여 사실상 감소를 보이는 연령층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군부의 전체 가구주율은 2010년까지 繼續 감소하여 0.045에 이른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25~29세, 55~59세의 경우만이 감소할

Table IV-1. Projected Headship Rates by Age and Region(Adjusted)

지역·연령별 가구주율(보정추계치) : 1990~2010

Classification	1990	1995	2000	2005	2010
Whole Country					
Total	0.256	0.275	0.294	0.312	0.330
15~24	0.068	0.078	0.087	0.097	0.106
25~29	0.275	0.276	0.277	0.278	0.279
30~34	0.459	0.463	0.467	0.471	0.475
35~39	0.519	0.527	0.534	0.542	0.549
40~44	0.547	0.553	0.559	0.564	0.570
45~49	0.567	0.576	0.584	0.592	0.603
50~54	0.571	0.578	0.584	0.591	0.597
55~59	0.541	0.530	0.519	0.507	0.497
60+	0.455	0.467	0.479	0.491	0.503
Urban Area					
Total	0.347	0.470	0.534	0.591	0.641
15~24	0.079	0.089	0.098	0.108	0.117
25~29	0.284	0.280	0.276	0.273	0.269
30~34	0.465	0.462	0.459	0.456	0.453
35~39	0.511	0.502	0.494	0.486	0.477
40~44	0.558	0.555	0.552	0.549	0.546
45~49	0.585	0.586	0.587	0.588	0.589
50~54	0.599	0.605	0.611	0.616	0.622
55~59	0.560	0.550	0.539	0.529	0.519
60+	0.451	0.468	0.485	0.502	0.518
Rural Area					
Total	0.124	0.097	0.075	0.058	0.045
15~24	0.035	0.037	0.039	0.041	0.043
25~29	0.198	0.167	0.140	0.118	0.100
30~34	0.431	0.438	0.444	0.451	0.458
35~39	0.513	0.537	0.560	0.582	0.603
40~44	0.503	0.506	0.509	0.512	0.515
45~49	0.524	0.529	0.534	0.539	0.543
50~54	0.533	0.535	0.537	0.539	0.541
55~59	0.516	0.499	0.482	0.467	0.451
60+	0.458	0.467	0.470	0.484	0.492

뿐 모든 연령군에서 증가추세를 보인다.

또한 1980년, 1985년의 경우, 시부에서는 50~54세를 정점으로 감소, 군부에서는 55~59세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군부의 경우 시부보다 정점을 나타내는 연령이 높았었는데 그 이후 그러한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시부의 경우

50~54세 연령층의 가구주율이 인접 연령층에 비하여 증가율이 높아,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주율도 증가하여 50~54세를 정점으로 감소하던 그 이전의 특성을 더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는 반면, 군부에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주율이 증가하여 35~39세에 0.603을 정점으로 감소

하다가 다시 증가 그리고 또 다시 감소하는 일관성 없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隣接 연령층간의 가구주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向後 군부의 가구주는 연령별 不均衡을 이룰 것으로 展望된다. 가구주율 역시 人口構造의 특성을 反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성별로 세분화해 보기로 한다(표 IV-2). 전체 가구주율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남, 녀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내 2010년에 이르면 남자 0.551, 여자 0.127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15~24세, 30~54세의 연령층은 그대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25~29세, 55~60세 이상의 연령층은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45~54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군에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자의 경우 1980, 1985년 모두 연령에 따라 가구주율이 증가, 50~54세를 정점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以後 45~49세 가구주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를 보여 2000년에 가면 45~49세를 정점으로 감소하게 된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1980, 1985년 모두 55~59세를 정점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가구주율의 增加폭이 커지면서 1995년부터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주율도 높아지는, 여성의 연령과 가구주율간에 正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結局 남자 가구주는 차차 줄어들어 가는 동시에 여자의 경우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結婚狀態別 家口主率을 보자면(표

Table IV-2. Projected Headship Rates by Sex and Age(Adjusted)

성·연령별 가구주율(보정추계치) : 1990~2010

Classification	1990	1995	2000	2005	2010
Male					
Total	0.433	0.465	0.495	0.524	0.551
15~24	0.066	0.069	0.072	0.075	0.077
25~29	0.490	0.483	0.477	0.470	0.463
30~34	0.843	0.852	0.861	0.869	0.876
35~39	0.915	0.917	0.919	0.921	0.922
40~44	0.953	0.959	0.964	0.968	0.972
45~49	0.966	0.971	0.975	0.978	0.981
50~54	0.969	0.971	0.974	0.976	0.978
55~59	0.953	0.952	0.951	0.950	0.949
60+	0.796	0.787	0.779	0.770	0.761
Female					
Total	0.085	0.095	0.106	0.117	0.127
15~24	0.068	0.082	0.099	0.113	0.128
25~29	0.061	0.070	0.078	0.113	0.128
30~34	0.062	0.064	0.066	0.068	0.070
35~39	0.090	0.093	0.096	0.068	0.070
40~44	0.138	0.148	0.157	0.167	0.176
45~49	0.150	0.145	0.139	0.134	0.129
50~54	0.184	0.172	0.160	0.150	0.140
55~59	0.240	0.246	0.252	0.258	0.263
60+	0.234	0.263	0.292	0.319	0.346

Table IV-3. Projected Headship Rates by Marital Status(Adjusted)

혼인상태별 가구주율(보정추계치) : 1990~2010

Classification	1990	1995	2000	2005	2010
Married					
Total	0.477	0.484	0.490	0.497	0.504
15~24	0.142	0.157	0.173	0.187	0.202
25~29	0.323	0.324	0.325	0.326	0.327
30~34	0.467	0.471	0.475	0.479	0.483
35~39	0.529	0.552	0.573	0.594	0.613
40~44	0.531	0.536	0.541	0.545	0.550
45~49	0.547	0.556	0.564	0.572	0.581
50~54	0.550	0.554	0.558	0.562	0.573
55~59	0.523	0.496	0.470	0.446	0.423
60+	0.535	0.515	0.496	0.478	0.461
Widowed					
Total	0.475	0.495	0.515	0.534	0.552
15~24	0.314	0.286	0.261	0.238	0.218
25~29	0.614	0.634	0.653	0.670	0.687
30~34	0.786	0.814	0.838	0.860	0.878
35~39	0.807	0.889	0.909	0.924	0.938
40~44	0.886	0.911	0.930	0.945	0.957
45~49	0.841	0.874	0.901	0.922	0.938
50~54	0.728	0.768	0.803	0.832	0.857
55~59	0.598	0.634	0.668	0.698	0.725
60+	0.332	0.363	0.393	0.422	0.450
Divorced					
Total	0.692	0.736	0.773	0.806	0.834
15~24	0.241	0.271	0.300	0.328	0.355
25~29	0.401	0.424	0.447	0.468	0.488
30~34	0.567	0.602	0.633	0.663	0.690
35~39	0.691	0.727	0.758	0.787	0.811
40~44	0.770	0.808	0.839	0.865	0.887
45~49	0.795	0.828	0.855	0.879	0.898
50~54	0.773	0.805	0.835	0.858	0.878
55~59	0.735	0.769	0.799	0.825	0.848
60+	0.664	0.728	0.780	0.822	0.855
Single					
Total	0.101	0.120	0.140	0.160	0.178
15~24	0.061	0.071	0.080	0.090	0.099
25~29	0.201	0.223	0.244	0.265	0.285
30~34	0.343	0.386	0.427	0.465	0.501
35~39	0.459	0.529	0.589	0.642	0.687
40~44	0.532	0.614	0.682	0.738	0.784
45~49	0.569	0.659	0.730	0.787	0.831
50~54	0.573	0.655	0.721	0.778	0.822
55~59	0.581	0.669	0.739	0.794	0.837
60+	0.511	0.598	0.667	0.725	0.773

IV-3) 有配偶의 경우도 전체 수치 뿐 아니라 55~60세 이상의 연령군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死別의 경우는 15~24세의 연령군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離婚의 경우는 例外없이 모든 연령군에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未婚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군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15~29세 연령군을 제외하면 앞의 세 경우보다 빠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 패턴을 살펴보면 유배우의 경우도, 가장 높은 가구주율을 나타내는 연령이 점점 낮아져 2010년에 이르면 35~39세의 0.613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유배우 가구주는 남자의 比率이 월등히 높은만큼 남성 가구주율의 變動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별의 경우는 1980, 1985년 모두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 40~44세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되 인접 연령층과 큰 差異 없이 전체적으로 높은 가구주율을 보이던 그 특성이 2010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만 15~24의 경우만이 감소를 계속하여 1980, 1985년에 0.377, 0.344이었던 것이 2010년에 가면 0.218에 이르게 된다. 사별의 가구주율이 유배우의 경우보다 높은 경우 사별 가구주는 相對적으로 여성이 많기 때문인데 차차 젊은 여성의 재혼율이 높아지면서 15~24세의 가구주율이 감소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혼의 경우는 1980, 1985 모두 연령에 따라 가구주율이 증가하다가 45~49세를 정점으로 감소하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시켜 가면서 모든 연령층의 가구주율이 증가해가는 경향을 나타낼 전망이다. 반면 미혼의 경우는 전 연령층에 걸쳐 가구주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특정 연령층을 정점으로 증가, 감소하던 일관적 패턴이 없어지고 3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가구주율을

보일 것이 豫想된다.

결과적으로 向後 가구주율은 漸次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이며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의 가구주율이 많이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또한 시부지역의 가구주율 증가현상과 군부지역의 감소현상,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군부가구주 연령구조의 불균형 추세는 지속되리라 보이며, 미혼의 가구주율이 크게 증가해갈 것으로 생각된다.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실시된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가구주율을 計算, 時系列分析을 통해 그동안 가구주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두 센서스년도 즉 1980년과 1985년 가구주율을 기초자료로 2010년까지의 가구주율을 推計, 將來 家口主率 變動推移를 展望하였다.

우리나라 가구주수는 지난 30년간 약 160.6%의 純增加를 나타내고 있어 都市化, 産業化로 인한 家口分化現狀이 급속히 進行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親族家口를 세분화하여 보았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1世代 및 2世代 家口の 增加와 3世代, 4世代 家口の 相對的 減少가 뚜렷하여 1985년에 3, 4世代 家口가 全體 家口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8%에 불과하였다.

또한 核家族化, 小家族化 現狀은 가구당 平均 家口員數의 변화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의 평균가구원수는 5.7명이었으나 차차 줄어들어 1990년에는 3.8명에 이르게 되는데 1960년에 시부보다 좀 높은 수치를 보였던 군부 역시 1990년에는 시부와 같은 3.8명에 이름으로써 가구분화가 군부에서 좀 더 빠르게 進行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군부지역의 境遇, 産業化, 都市化가 가져온 衝擊이 시부보다 컸음을 여기서도 엿보게 된다.

그러한 평균가구원수의 변화는 構成員 性比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1970년만 해도 男子 2.59명, 女子 2.65명으로 女子 構成員이 많았으나 1990년에 오면 남자가 1.92명, 여자가 1.90명으로 男子 構成員數가 높아지게 된다. 韓國 社會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은 醫學技術의 發展에 힘입어 더 크게 表出되고 있다 하겠다.

그동안 가구주율의 변동양상을 연령별로 요약해 보면,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50대까지 繼續 증가하다가 그 후에 감소하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별로 세분화해 보더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婚姻狀態別 家口主率을 보면 離婚의 境遇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有配偶, 死別, 未婚의 순서를 나타낸다. 이것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남자의 경우는 유배우의 가구주율이 다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이혼, 다음이 사별, 미혼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자는 이혼인 경우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사별, 미혼, 유배우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어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야 가구주가 될 가능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을 시, 군부별로 살펴보았을 때 1975년에는 미혼 남녀를 제외하고 시부에 비해 군부지역이 높았으나 그 이후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시부의 가구주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자 가구주율은 유배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이혼, 사별, 미혼의 순서로 그리고 여자의 가구주율은 미혼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별, 미혼, 유배우 순으로 나타나던

특징이 1985년부터는 군부까지 적용되어 보편적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까지의 추세치에서 나타난 特徵을 要約하면, 全體 가구주율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주율도 높아지다가 일정 연령군에 이르러 감소하는 경향은 변함이 없으나 정점을 이루는 연령층이 漸次 젊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가구주율은 繼續 증가해 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가구주율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가구주율에서 시부지역은 뚜렷한 가구주율 증가추세를 보일 전망이나 군부의 가구주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가구주율의 연령구조에 있어서의 不均衡 역시 深化될 것이다. 군부의 境遇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주율이 일정 연령층까지 증가하는 일관된 패턴이 사라지고 인접 연령층과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부녀화, 노령화되어 가는 군부 인구의 연령구조의 불균형이 가구주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가구주율은 남녀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내 여성의 경우 남자가가구주율과의 상대적 격차는 크게 나타나나 자체 증가율은 빠르고, 연령별 가구주율패턴은 기존양상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남자가가구주는 차차 젊어져가는 동시에 여자의 경우는 가구주연령이 높아 갈 전망이다.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에서는 이혼과 미혼의 경우 전 연령군에서 빠른 증가를 보이며, 특히 미혼가구주율의 경우 30대 이후에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參 考 文 獻

- 朴丙台, 全國 家口 및 結婚數 推計,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 李海英, “將來 家口에 관한 一研究: 1960~1966”,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會報 제 2 권 제 1-2호,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1973.
- 統計廳,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書,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 崔鳳鎬, “우리나라의 家口 및 家族構造의 變動”, 우리나라 人口變動의 分析,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Mason · Andrew · Homes, *A Household Model for Economic and Social Studies*,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1987.
-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 *Household Projections for Japan : 1985~2025*, Tokyo, Japan, 1987.
- Kono, S. “Further Contrivances on Methods of Household Projections with Special Attention to Size and Social Development Planning” in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 *Solicited Papers*, Vol. 3, Manila, 1981.
- Park, J. M. “Individual Effec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Vol. 10, No. 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0.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Methods of Projecting Households and Families”, *Manual VII*, New York, 1973.

附 錄 表

Appendix I. Age-specific Headship Rates : 1975~1985

연령계층별 가구주율 : 1975~1985

Age group	Whole Country	Urban	Rural
1975			
Total	.192	.198	.185
15~24	.040	.045	.046
25~29	.258	.156	.249
30~34	.444	.264	.415
35~39	.501	.268	.476
40~44	.525	.260	.498
45~49	.534	.254	.503
50~54	.561	.248	.533
55~59	.547	.218	.526
60+	.374	.132	.348
1980			
Total	.213	.218	.206
15~24	.048	.059	.031
25~29	.273	.292	.279
30~34	.451	.471	.411
35~39	.503	.529	.460
40~44	.535	.564	.497
45~49	.549	.583	.514
50~54	.557	.587	.529
55~59	.565	.582	.551
60+	.429	.413	.440
1985			
Total	.237	.313	.160
15~24	.058	.069	.033
25~29	.274	.288	.235
30~34	.455	.468	.418
35~39	.511	.520	.487
40~44	.541	.561	.500
45~49	.558	.584	.519
50~54	.564	.593	.531
55~59	.553	.571	.533
60+	.442	.432	.449

Appendix II. Headship Rates by Age, Sex and Marital Status, for Urban and Rural Areas : 1975

지역 · 성 ·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주율 : 1975

Age group	Male				Female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Urban area								
Total	.434	.222	.254	.034	.021	.175	.382	.027
15~24	.027	.201	.076	.020	.010	.169	.148	.022
25~29	.450	.281	.167	.094	.015	.312	.260	.092
30~34	.515	.308	.222	.151	.019	.391	.356	.134
35~39	.490	.331	.263	.172	.022	.416	.436	.138
40~44	.459	.356	.293	.166	.028	.394	.472	.145
45~49	.441	.392	.343	.184	.031	.329	.456	.136
50~54	.407	.369	.306	.156	.029	.262	.406	.102
55~59	.355	.316	.254	.147	.026	.186	.309	.121
60+	.262	.149	.173	.107	.019	.073	.160	.053
Rural area								
Total	.875	.489	.479	.062	.024	.281	.442	.014
15~24	.436	.398	.215	.029	.009	.214	.089	.011
25~29	.569	.471	.369	.169	.015	.483	.185	.068
30~34	.838	.579	.362	.240	.020	.666	.355	.133
35~39	.912	.669	.501	.240	.026	.709	.519	.158
40~44	.944	.708	.529	.217	.032	.643	.612	.145
45~49	.965	.749	.535	.198	.034	.521	.593	.149
50~54	.975	.754	.524	.191	.031	.425	.578	.155
55~59	.960	.706	.523	.206	.026	.316	.456	.119
60+	.806	.344	.435	.190	.023	.142	.284	.085

Appendix III. Headship Rates by Age, Sex, and Marital Status, for Urban and Rural Areas : 1980

지역 · 성 ·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주율 : 1980

Age group	Male				Female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Urban area								
Total	.920	.640	.583	.077	.043	.436	.619	.065
15~24	.674	.442	.160	.050	.015	.431	.205	.005
25~29	.841	.570	.373	.174	.024	.636	.412	.158
30~34	.905	.691	.476	.257	.038	.758	.534	.256
35~39	.947	.756	.590	.304	.048	.836	.649	.304
40~44	.963	.840	.657	.341	.058	.846	.720	.320
45~49	.973	.871	.712	.353	.066	.759	.740	.327
50~54	.976	.851	.714	.378	.073	.614	.710	.381
55~59	.964	.796	.725	.377	.074	.481	.643	.376
60+	.863	.489	.605	.336	.068	.225	.409	.278

Appendix III. Continued

Age group	Male				Female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Rural area								
Total	.878	.598	.519	.047	.027	.280	.510	.022
15~24	.450	.445	.196	.028	.010	.274	.117	.017
25~29	.681	.513	.310	.136	.017	.496	.599	.076
30~34	.808	.596	.421	.229	.025	.688	.392	.178
35~39	.891	.675	.521	.264	.028	.793	.545	.246
40~44	.930	.766	.582	.281	.030	.778	.633	.274
45~49	.951	.809	.620	.272	.032	.700	.690	.252
50~54	.967	.820	.624	.273	.034	.592	.671	.308
55~59	.968	.792	.598	.263	.034	.487	.651	.303
60+	.875	.372	.565	.246	.032	.232	.431	.291

Appendix IV. Headship Rates by Age, Sex, and Marital Status, for Urban and Rural Areas : 1985

지역 · 성 ·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주율 : 1985

Age group	Male				Female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Married	Widowed	Divorced	Single
Urban area								
Total	.927	.603	.649	.094	.047	.460	.677	.092
15~24	.751	.411	.149	.054	.015	.403	.287	.071
25~29	.862	.543	.386	.196	.023	.467	.437	.192
30~34	.916	.665	.520	.300	.036	.802	.579	.330
35~39	.946	.757	.635	.386	.049	.872	.698	.414
40~44	.964	.812	.725	.477	.062	.882	.763	.433
45~49	.972	.864	.762	.546	.070	.821	.787	.418
50~54	.974	.848	.762	.578	.077	.681	.758	.424
55~59	.961	.777	.758	.578	.086	.534	.691	.434
60+	.858	.467	.694	.513	.088	.269	.544	.384
Rural area								
Total	.890	.545	.583	.057	.029	.413	.535	.034
15~24	.067	.299	.189	.029	.008	.262	.128	.062
25~29	.728	.480	.324	.143	.014	.497	.212	.091
30~34	.836	.592	.458	.265	.022	.719	.407	.210
35~39	.900	.666	.572	.345	.028	.820	.554	.296
40~44	.942	.754	.656	.392	.031	.828	.645	.343
45~49	.963	.813	.691	.424	.032	.747	.683	.342
50~54	.973	.820	.673	.453	.035	.642	.668	.316
55~59	.968	.793	.675	.441	.041	.543	.651	.380
60+	.861	.352	.594	.381	.045	.286	.558	.361

Changing Pattern and Prospect of Headship Rates in Korea

Ju-Moon Park*, Hee-Ji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lculate the headship rate for time-series analysis and to review the patterns of changing headship rates and related factors and to estimate the headship rates by 2010 to indicate the prospect for households.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derived from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s from 1960 through 1990, UN Manual VII and household-related literature.

Modified exponential extrapolation used in the present projection is not perfect, but it possesses the advantage of requiring only two past observed points as base data for the future trajectory of headship rate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curve fitting by other types of modified exponentials such as the logistic or Gompertz function needs at least three past observed points.

The total population increased from 25,012,000 in 1960 to 42,869,000 in 1990, a net increase of 74.4% over the past thirty years. The population growth rate continued to decrease from 2.6% for the period 1960~1966 to 1.0% for the period 1985~1990. Their decrease was closely related to the phase of demographic transition, which had already attained 102% in

1983. The recent growth rate of the male population is higher than that of the female population : that of the male population was 1.5% and that of female population 1.4% in 1990.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re is a male sex preference in Korean society. By sex, each household had 2.59 male persons and 2.65 female members in 1970 and 1.92 male persons and 1.90 female members in 1990.

The number of households showed a net growth of 160.6% in the past thirty years, from 4,358,000 in 1960 to 11,357,000 in 1990. This was a greater and faster growth than the net population growth of 74.4% in the same period. The growth rate of households was 2.5% in the 1960~1966 and 1966~1970 period and 3.6% in the period 1970~1975, 3.7% in the periods 1975~1980 and 1980~1985 and 3.5% in the period 1985~1990. This high growth rate due to a change in households, resulting from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westernization of the people's life style.

The distribution family households decreased from 96.9% in 1966 to 91.4% in 1985, whereas those with a single person and non-family households continued to increase : 2.3% in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1970 to 6.9% in 1985 for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0.8% in 1966 to 1.7% in 1985 for non-family households. These trends resulted from the increase in nuclear family households. Family households showed a big decrease in rural areas, whereas non-family and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ed more in rural than in urban areas.

The average number of households decreased rapidly from 5.7 persons in 1960 to 3.8 persons in 1990. This was due to a complex interaction of many factors such as declining fertility, increasing divorc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ecently the number of rural household members is almost same as in urban household, which is due to rapid change in rural households. The age-specific headship rates continued to increase in the early fifties with some small variations and then they decreased. They were uniform by region although there were small differences from region to region and a substantial variation by sex. The headship rates specific for age, sex, and marital status continued to increase by reaching a specific age. Also, there were big differences in the headship rates according to marital status for both sexes. In 1975 urban areas had a lower headship rate than rural areas for both sexes excluding unmarried woman, but in 1980 the headship rates in urban areas were higher than those of rural areas, because urban households increased due to increasing rural to urban migration accelerated since the mid-1960s.

The total headship rate will continue to increase at a constant rate, and will be over 0.330 in 2010. All ages except for ages 55~59 will have increasing headship rates by 2010.

In urban areas, the headship rate will continue to increase steadily, while in rural areas the reverse will be true. Specifically, urban area rate will increase greatly from 0.218 in 1980 to 0.641 in 2010, but the age-specific headship rates show different patterns. Namely, ages 15~24, 45~49, 50~54 and over 60 will have continuously increasing headship rates, but for ages 25~44, and 55~59 they will continue to decrease until 2010.

In rural areas, the total headship rate will steadily decrease to 0.045 in 2010. Looking into it in more detail, only the headship rates of ages 25~29 and 55~59 will decrease, while for other ages they will increase. The headship rate specific for sex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headship rate specific for sex will continue to increase by 2010: it will be 0.551 for males and 0.127 for females. For males, the age-specific headship rate will continue to increase for ages 15~24 and 30~54 and to decrease for ages 25~29, 55~59 and over 60. For females, it will increase for all ages except 45~54.

There will be an increasing trend for all ages except 55~59 and over 60 as well as for the total. For the widowed it will increase steadily for all ages except 15~24. The divorced will have a high headship rate increase for all ages, while the single will have the most rapid increase rate for all ages except 15~29.

In sum the total headship rate will maintain a uniform pattern of decrease and increase by specific age and peak headship rates will gradually extend to younger people, who will show relatively higher headship rates with the older age groups. Rural headship rates will decrease

steadily and be greatly influenced by age structure. The imbalance of the age structure in rural areas may result from the overall feminization and aging of the remaining rural population and will also influence rural headship rates.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headship rates between

male and female will be great, even though there will be the fast growth in the female headship rate. Lastly both the divorced and the single will have increasing headship rates for all ages and the single will have the most rapid increase rate after their thirties.